

Global Market Daily



리테일파생팀/(1544-8400)

Market Data

(2024. 09. 06 기준)

News Brief

지수

품목	종가	등락률
종합(KOSPI)	2,544.28	-1.21%
일본니케이225지수	36,391.47	-0.72%
중국상해종합지수	2,765.81	-0.81%
유로스톡스50	4,738.06	-1.60%
독일지수	18,301.90	-1.48%
프랑스지수	7,352.30	-1.07%
다우존스 산업지수	40,345.41	-1.01%
S&P500	5,408.42	-1.73%
브라질지수	136,502.40	+0.29%
인도지수	81,183.93	-1.24%

통화

품목	종가	등락률
USD/KOR	1,339.90	+0.48%
EUR/USD	1.1101	+0.21%
USD/JPY	142.41	-1.06%
GBP/USD	1.3158	+0.02%
AUD/USD	0.6697	-0.37%
USD/CAD	1.3541	+0.18%
USD/CNY	7.0898	-0.04%
USD/HKD	7.7943	-0.02%
USD/CHF	0.8426	-0.66%
USD/BRL	5.586	-0.39%

에너지/금속

품목	종가	등락률
WTI, 뉴욕 (선)	67.67	-2.14%
Brent, 북해산 (선)	71.06	-2.24%
Natural Gas(선)	2.127	-0.47%
금, 뉴욕 (선)	2,524.60	-0.73%
은, 뉴욕 (선)	28.18	-3.15%
구리, LME	8,915.00	+0.96%
아연, LME	2,687.50	-1.68%
니켈, LME	15,770.00	-1.62%
알루미늄, LME	2,427.00	-4.60%
주석, LME	30,300.00	+0.33%

■ 뉴욕증시, 성장 우려 재부각에 일제히 하락...올해 최악의 한 주

- 뉴욕증시는 약한 고용 지표는 다시 한 번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큰 폭으로 하락 마감
- 투자자들이 주목한 8월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약했다. 미 노동부는 8월 비농업 부문인 신규 고용이 14만2000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월가 전망치 16만 건에 못 미치는 수치임. 이미 약했던 7월 수치도 11만4000건에서 8만9000건으로 비교적 크게 하향 조정돼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6월 비농업 신규 고용 건수도 6만1000건이나 하향 조정된 11만 8000 건이었음. 3개월 평균 신규 고용 건수는 11만6000건으로 집계됐음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설 시점이 됐다면서 금리 인하 폭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직 없다며 말을 아꼈음

■ 유럽증시, 美 부진한 일자리 보고서에 일제히 하락... 한 달 만에 최악의 하루

- 유럽증시는 투자자들이 엇갈린 미국 통계를 소화하면서 한달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였음
- 특히 예상보다 부진한 미국의 일자리 보고서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약세장을 연출함

(출처 : 블룸버그, WSJ)

■ 달러화, 3일만에 ↑...월러 발언에 '빅컷' 기대 약화

- 달러화는 고용 보고서를 소화하며 위아래로 크게 출렁이던 달러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이 전해진 뒤 사흘 만에 오름세로 방향을 잡음
- 월러 이사는 '빅 컷'(50bp 인하)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당장 이달에 그릴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함께 시사했음
- 노동부에 따르면 8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은 전월보다 14만2천명 증가했음. 시장 예상치 16만4천명 증가를 밑돌았을 뿐 아니라 이전두달치는 8만6천명 하향 수정됐음.
- 반면 최근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실업률은 4.2%로,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하며 예상에 부합했음. 지난 7월 실업률이 4.3%로 뛰어오르자 경기침체 공포가 불어닥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충격을 받은 바 있음
-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뉴욕 오후 장 후반께 이달 50bp 인하 확률을 31.0%로 가격에반영했다. 전장보다 9.0%포인트 낮아졌음

(출처 :마켓워치)

■ 국제유가, 美 고용 약화에 수요 불안 고조...WTI 2.14% ↓

- 뉴욕유가는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침체 우려로 번지면서 뉴욕유가가 급락했음
- 전달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는 당초 10월부터 예정됐던 증산 시점을 두 달 연기하기로 했지만 유가에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음
- OPEC+가 2분기와 3분기에 걸쳐 시행했던 하루 220만배럴 감산 조치는 이번 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음. OPEC+는 다음 달부터 하루 18만배럴 규모로 감산량을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연말까지 미루겠다는 것임
- 원유 공급을 줄이는 만큼 유가에 상승 재료지만 시장은 미국 경기침체 우려를 더 큰 재료로 인식하고 있음. 중국에 이어 미국마저 원유수요가 감소하면 유가는 하방 압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음

■ 금가격, 엇갈린 고용지표에 금리 인하 폭 미지수...반락

- 금가격은 금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향한 반등세에서 미국의 8월 고용지표와 실업률이 엇갈린 양상을 보여 Fed-연준의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전망이 흐려지자 금 값이 내려앉음

(출처 : 블룸버그, WSJ)

Economic Calendar D

시간	통화	경제지표	예상	이전	중요도

(출처 : 연합인포)

Economic Calendar D+1

시간	통화	경제지표	예상	이전	중요도
15:00	EUR	독일 CPI 상승률 (전년비)	0.019	0.023	3

(출처 : 연합인포)

Technical Point

해외선물 (대표월물)

(2024. 09. 06 기준)

상품	종목	종가	전일대비	2차저항	1차저항	1차지지	2차지지
지수	Mini S&P 500	5419.50	-1.68%	5587.08	5549.67	5482.42	5452.58
	FTSE China A50	11382.0	-0.82%	11578.7	11527.3	11427.3	11378.7
	NIKKEI225 Dollar	35280	-4.74%	37708	37372	36467	35898
통화	Euro FX	1.10905	-0.16%	1.11508	1.11297	1.10832	1.10578
	British Pound	1.3136	-0.28%	1.3215	1.3194	1.3145	1.3117
	Japanese Yen	7033.0	+0.74%	7044.8	7013.2	6946.2	6910.8
금속	Gold	2524.6	-0.73%	2570.6	2556.8	2526.5	2510.0
	Silver	28.183	-3.15%	30.076	29.588	28.573	28.046
	Copper	4.0735	-1.55%	4.2438	4.1907	4.0632	3.9888
에너지	Crude Oil	67.67	-2.14%	71.64	70.40	68.33	67.50
	Brent Crude Oil	71.06	-2.24%	74.90	73.79	71.97	71.26
	Natural Gas	2.127	-0.47%	2.208	2.168	2.090	2.052

FX Market

(2024. 09. 06 기준)

Currency	구분	종가	전일대비	2차저항	1차저항	1차지지	2차지지
	EUR/USD	1.111	+0.25%	1.113	1.111	1.105	1.102
	USD/JPY	143.456	-0.19%	146.189	144.957	144.334	143.102
	GBP/USD	1.31810	+0.25%	1.32152	1.31818	1.31415	1.31081
	USD/CAD	1.35045	-0.01%	1.35890	1.35471	1.35236	1.34817
	AUD/USD	0.67408	+0.23%	0.67840	0.67547	0.67202	0.66909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입니다. 당사 고객에 한해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 배포, 전송, 변형, 대여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키움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외파생상품(선물&옵션거래)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청산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FX마진거래는 위탁수수료가 없으나 매매 시 호가 스프레드 등의 거래비용이 발생합니다.

-해외선물거래시 수수료(달러상품 계약당 \$7.5, 엔화상품 계약당 ¥600)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수수료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파생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 중목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